



농협 김제시지부, NH조록세상 전북 제14호' 조성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지부장 조원석)는 지난 23일 김제시 김산동에 위치한 꿈의지역이동센터(센터장 조은주)를 찾아 NH조록세상 전북 제14호'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원석 농협은행 김제시지부장, 안소라 세이브리치힐드런 전북이동센터장 등이 참석해 천연이끼 식물인 스킨다마초스와 자작나무로 만든 식물벽을 전달했다. 조성된 식물벽은 습도조절과 실내 공기정화는 물론 노후 인테리어 개선 및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대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행은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NH조록세상, NH교실숲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와 ESG 경영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서남환경, 남원 향교동에 고구마 후원

남원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는 23일 서남환경에서 고구마 10kg, 10박스를 기부해 향교동의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구마는 1일 1가구 방문 소통행정을 통해 취약가구에 전달될 예정으로 권혜정 동장은 매일 한 가구를 방문해 소통하고 지원하는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신뢰를 쌓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고구마 후원은 방문하는 가정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권혜정 향교동장은 "서남환경의 후원 덕분에 취약가구에 더욱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어르신에 케이크·고구마 전달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23일 생신을 맞은 이모(78) 어르신의 생일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생일축하 사업은 가족이 멀리 있거나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너 건강할 땐 베이커리의 후원으로 3월 말부터 매달 수제 케이크를 전달하고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서남환경에서 기부한 고구마 10kg를 같이 전달했다.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생일을 챙기던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동에서 챙겨주시어 정말 고맙고 덕분에 풍족한 생일을 보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동면, 취약계층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시행

남원시 산동면에서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시작으로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33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는 등 주민 전반에 대한 사각지대 확인 및 추가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돌봄서비스로 주민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주민 불편 사항 조사 및 해결을 위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시하며, 정서적 지지 및 건강증진 활동을 격려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시행과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홍보 물품 제공 등의 활동을 시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최연소 나눔 기부자 탄생

채지인 양 첫돌 기념해 아버지 채병관씨 300만원 기부로 훈훈한 전례

군산시가 24일 군산시 최연소 나눔 기부자의 탄생을 알렸다. 주인공은 첫돌을 맞은 채지인 양으로 조흔동에 거주하는 아버지 채병관 씨가 지인 양의 이름으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로써 채지인 양은 군산시 최연소 나눔 기부자로 따뜻하고 특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성금을 기탁한 지인 양의 아버지 채병관 씨는 "첫 생일을 맞은 딸 지인이 이름으로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소중한 딸이 기부를 통해 주변을 살피는



착한 마음을 지니며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채병관 씨는 작년도 형제들과 함께 결혼 축의금 일부인 5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기부 릴레이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취학 아동 80여 명에게 유산균 영양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지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농협 정읍시지부 등, 정읍쌀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는 24일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를 찾아 '다문화 가정 쌀 지원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재연 지부장은 정읍시가족센터에 백만원 상당의 단품미인 쌀(10kg, 40가비)을 전달 하였으며,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통한 정읍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정읍시가족센터 쌀 지원금은 전북농협 조합장협의회 모금액에서 지원되었으며, 전북농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지점센터와 아침밥 먹기 운동 및 다문화가정 쌀 지원 업무협약 실시로 다문화가정 쌀 지원에 쓰여질 예정이다. 한편 농협정읍시지부는 "정읍시와 기관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정읍 출향기업 및 정읍소재기업"과 정읍 쌀 소비촉진 기업 캠페인 등을 통해 "정읍쌀 소비촉진 및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재연 지부장은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아울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복드림복지회, 정읍시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정읍시는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대표 김선례)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김선례 대표는 "지역 아이들이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해 꿈을 키워나갈 비탄"이라고 전했다. 이학수 이사장은 "행복드림복지회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이 장학금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행복드림복지회는 인식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수배전반 자동제어, 계장·계측 제어장치를 생산하여 전국의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전기 기술자로 양성하는 한편, 인건비용 분담만 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과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슬지제빵소, 이웃돕기 물품 기탁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슬지제빵소(대표 김중우)는 지난 20일, 부안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20포와 전병(160민원) 등 총5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물품을 기탁했다. 부안군 진서면 소재 슬지제빵소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맛있고 독특한 전병을 만들고 있는 부안군 대표 맛집 명소이며, 김중우 대표가 3대 대표직을 맡고 있다. 슬지제빵소는 2023년 4월부터 부안군에 매일 전병세트 30박스를 정기 기탁하고 있다. 김중우 대표는 "쌀값이 하락하고 쌀 소비가 줄면서 많은 농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 어려운 농가들과 지역의 소외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쌀을 구매해 기탁하게 되었다"며 "더불어 추석명절에 슬지제빵소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이번 기부를 하게 되어 고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슬지제빵소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슬지제빵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백미와 전병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시, 제17회 치매극복의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한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24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치매에도 관철!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치매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400명이 참석했다. 시는 치매극복을 위해 노력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김제시장 표창(4점)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치매안심센터가 이뤄 놓은 치매사업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식전 오프닝에 상영, 시민들의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릴레이 치매조기검진 챌린지에 참여한 정성주 김제시장, 백형석 김제경찰서장, 김제시의회 서백현의장, 김제교육지원청 강진순 교육장, 나인권 도의원 등의 챌린지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전북최초 치매공공 후견인으로 5년 동안 활동해 온 공공후견인의 후견 사례 및 치매가족의 수기 발표와 미래변형 신경정신과전문의의 치매에 관한 강연도 있어 치매환인과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기념사에서 "치매환자와 가족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다"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존엄과 안심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극복의 날 주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 이외에도 조기검진 챌린지, 치매상식 관련 퀴즈 풀기, 거리 캠페인 등 다채롭고 풍성한 주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운봉읍 기관사회단체장, 제2중양경찰학교 유치 결의

남원시 운봉읍 기관사회단체장은 지난 23일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중양경찰학교(이하 학교) 남원시 유치를 염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학교 공모사업 추진 개요 설명, 유치를 위한 기관·단체장의 의견 건의, 유치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또한 읍 기관사회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해 학교 유치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기원했다. 학교 후보자인 운봉읍 가족유전자원사업장 부지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별도 행위 제한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 남원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고속철도(KTX, SRT), 2080년 달빛철도 개통 등으로 교통 접근성이 탁월해 이상적인 경찰교육의 허브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열 운봉읍행정과장은 "운봉읍만이 하나가 되어 학교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은주



순창경찰, 청소년 '딤편제 범죄' 예방교육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 여성청소년계(차지경화사무)는 지난 23일 순창제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딤편제, 사이버 도박 등 범죄예방 교육을 전개했다. 이날, 특별예방교육은 순창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된 것으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딤편제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무서운 범죄에 빠질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청소년들의 불법게임, 스포츠 도박 등 성인 도박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실태에 대해 알리는 등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강의를 진행했다. 여경청소년계는 관내 초·중·고 주요 학교에 대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도박 관련 특별예방교육을 지속 전개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합을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시 덕천면 주민들에 따뜻한 자장면 나눔

정읍시 덕천면은 지난 23일 면사무소 광장에서 덕천면 이장협의회(회장 황흥규) 주관으로 '사랑 자장면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 중화요리 연합회(대표 노홍래)의 식재료·재능기부로 이뤄졌고, 덕천면 주민들·체육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회원 등 4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노홍래 회장은 "어르신들이 자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황흥규 회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자장면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이웃사랑을 실천한 노홍래 대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